

사무엘상 2.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삼상 1:1-2:11)

들어가기

사무엘상 1 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둘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첫째 아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엘가나는 늘 한나를 브닌나보다 위하며 사랑하였습니다. 특별히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실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남편이 한나를 더 위하는 것에 시기하였고, 이로 인해 자식이 없는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슬피 울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였는데, 그 모습이 제사장 엘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피 울며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말을 듣고 오해가 풀린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후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잉태하여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땔 때까지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사무엘을 돌보다 젖을 때면 그때 올라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남편과 상의하며 결정하셨습니다. 이후 사무엘이 젖을 땔 때 한나는 서원한대로 제물을 가지고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 엘가나의 가정 (1-8 절)

1)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살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었습니다.

- 라마다임소빔 : 예루살렘 북쪽 8 km 지역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한 도시로 이후부터 라마(1:19)로 자주 불려지게 됨
- **주목 - 엘가나는 레위인 이었습니다!**
 - ☆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얻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는 뜻
 - ☆ 역대상 6 장에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6:28;34-38)
 - ☆ 곧 ‘에브라임 사람’ 이라는 말은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 ☆ 그런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 곧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 그럼 엘가나는 왜 두 명의 아내를 취했을까?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 ✓ 참고: 일부일처제의 원리를 최초로 파괴한 사람? 가인 혈통의 _____ 이었습니다. (창 4:19)
-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약점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과 신앙의 자세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집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 참고 : 엘리 제사장

- ✧ 이름의 뜻은 ‘고상함, 높음’ 이란 뜻.
- ✧ 아론의 4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 ✧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유능한 사사 (4:18 절)
- ✧ 그런데 당시 엘리가 너무 늙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그의 두 아들이 대신해 성소의 일을 맡아 보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

3)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준 것으로 보아 엘가나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 참고 : 화목제

- ✧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에 이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세 번째 제사
- ✧ 번제와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정규적인 제사인 반면 화목제는 예배자가 드리기를 원할 때 드리는 선택적인 제사
- ✧ 당시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함으로 또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자원함으로 드림
- ✧ 화목제의 제물은 암수 관계없이 가축을 드릴 수 있었는데,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으나 화목제의 경우는 동물의 내장, 콩팥, 간 등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게 한 뒤, 제사 후 그 짐승의 고기는 먹도록 하였음 (레 7:15).
- ✧ 그때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고, 그 나머지는 예배자에게 돌려주어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어 함께 먹게 허락하였음.
- ✧ 따라서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고기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제사였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런데 한나는 그때 브닌나 보다 갑절로 제물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 ✧ ‘갑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마나 아카스 압파임’ 이란 말로 ‘얼굴의 몫’이라는 뜻
- ✧ 영어성경 - KJV = 'a worthy portion' (가치 있는 몫), NIV = ' a double portion' (갑절)

-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 ✧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

- ✓ 참고: 임신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레헴’ 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사랑하다’, ‘궁홀이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뜻! // (물론 자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됨)

✧ 여기서 우리는 자녀의 잉태와 출산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

4) 브닌나는 자신은 자식을 낳아 주었는데도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에 분노하여 더 더욱 한나를 시기하며, 자식 없음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스라엘 민족은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로 생각. (신 7:13,14)
- 자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 (창 20:17, 30:2, 삼하 6:23)
- 때문에 한나는 가족들이 함께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할 때마다, 브닌나가 자신의 아픔을 공격할 때 더욱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

5) 엘가나는 이런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으나, 결코 한나의 아픔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가나의 가정에 평안이 없었고 갈등과 시기와 다툼과 번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닌나는 교만하였고 남에 대한 동정과 배려가 없었으며, 한나는 연약하고 예민한 여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의 차별적 사랑은 이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더 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2. 엘리 제사장을 만난 한나 (9-18 절)

1) 한나는 자신의 슬픈 마음과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며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 주목 - 서원기도의 내용

- ✧ 아들을 주시면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릴 것
- ✧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 할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한나의 신앙과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가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곧 한나는 고통 중에 더욱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12 절에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였다는 것을 볼 때, 한나는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리고,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2) 탄식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오해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하였습니다.

■ 주목 - 엘리 제사장의 실수?

☆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보기보단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고 판단!

우리의 삶에도 타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먼저 깊이 이해할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처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3) 엘리 제사장의 책망을 들은 한나는 겸손하고,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주목 - 한나의 자기 변론 태도 (15-16 절)

- ① 단순하고 날카롭게 - “내 주여 그럴지 아니하니이다”
- ②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 -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
- ③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요청 -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 ④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 -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 한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큰 오해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예의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사실을 발견!

4)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위로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 엘리 제사장의 축복 -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 주목 - 한나의 반응

- ☆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 ☆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음!

■ 곧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모든 근심을 내려놓았다는 사실!

3. 사무엘의 출생과 헌신 (19-28 절)

1)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돌아가 엘가나와 동침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2)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정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뜻 =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3) 엘가나의 모든 식구들이 매년 하나님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 그 이유는 사무엘이 젖을 때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리기 위해서.

■ 사무엘이 젖을 땀 나이? 아마도 3 살까지는 한나가 데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

4)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 수소 3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서원한대로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 주목 - 28 절 한나의 자세!

☆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 일시적인 헌신이 아닌 또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 - 놀라운 결단!

4. 한나의 찬송의 기도 (2 장 1-11 절)

■ 다섯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찬송하며 기도를 드림

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 (1 절)

②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 (2 절)

③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 (3 절)

④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찬송! (4-8 절)

● 4 절: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할 것이고, 아무리 연약하여도 겸손한 맘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

● 5-8 절: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실현될 것! - Why ?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과하시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

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심을 찬송! (9-10 절)

● 종말론적 심판의 예언 : 메시아에 대한 예언

5.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